

순창군,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6개 분야 8대 추진과제 마련...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등 총력

순창군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군민들이 편안한 연휴를 맞이하도록 6개 분야 8대 추진과제를 담은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황숙주 순창군수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재난사고예방 ▲교통안전대책 강구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방역활동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공직기강 확립 등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설 연휴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물가, 의료, 재난, 종합상황반 등 6개반

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인명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명절기간 동안 보건 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감염원을 모른 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귀성과 역 귀성객의 이동을 자제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현수막과 이장회보, LED모니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자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취약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해 외부인 출입과 대면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코로나19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최근 종교시설과 관련해 다시 확산추

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종교시설 집중점검에 나서, 방역수칙 준수 등도 집중 점검한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는 떡이나 기름, 고추장 등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과 부적합 원료 사용여부 등도 단속해 군민들이 가족들과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단속에도 나선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없겠지만 군민들이 안심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꽃처럼 임실처럼' 사랑의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꽃처럼 임실처럼' 운동 전개

군, 지역 화훼농가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적극 홍보

임실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꽃처럼 임실처럼' 사랑의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군은 28일 코로나19에 따른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로 위축된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본청과 전 읍·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꽃 사주기 운동을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시름하고 있는 화훼농가에 웃음꽃을 안기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를 담아 '꽃처럼 임실처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민 군수는 화훼농가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통상 화훼농가들은 입학, 졸업, 기념일 등 행사가 몰려오는 1~2월에 맞춰 장미 등을 생산한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로 졸업식과 입학식, 각종 단체행사가 취소되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매출이 급감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적인 판매지원에 나섰다.

군은 사람의 1 테이블 1 플라워데이 '사랑의 꽃 사주기' 운동과 연계해 생일직원 축하 꽃 선물을 비롯하여, 회의 테이블 꽃 수반 비치 및 사무실 환경정비 등을 위해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관내 화훼농가로부터 꽃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날 심민 군수를 시작으로 본청 전 부서는 물론, 읍·면사무소,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오는 5월까지 '꽃처럼 임실처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관내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장미, 프리지어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5월 말까지 관내 유관기관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군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꽃처럼 임실처럼'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함께해요', '극복해요', '소원을 말해봐, 꽃 이루어질거야', '꽃길만 걸자' 등 메시지 등을 통해 동참을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아 판매 부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꽃처럼 임실처럼 사랑의 꽃 사주기 운동이 화훼농가의 경영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 전반에 꽃처럼 환하고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7개 사업 456억여원 예산 투입

남원시가 쇠퇴하고 있는 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구미도당 문화저장소 리뉴얼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비롯해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청년문화·창업공간조성사업 ▲정주환경조성사업 ▲구도심거점재생사업 등 총 7개 도시재생 사업에 총 456억여원

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금동의 옛 미도당을 비롯해 인접한 한옥을 활용한 한옥체험과 문화·예술·상업 등 복합공간 조성을 연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죽향동·동충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북부시장의 경우, 구역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근대건축물을 살리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사람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터미널지구는 구)리버사이드 위치에 이음센터를 신축을 위해 설계를 공모해 연내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터미널 옆 구)다솔연합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여성가족부 공모에 선정된 가족센터와 도시재생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신축을 위한 사전 검토 준비 중이며, 시내 흥농갈비 앞 상가건물을 철거, 상생협력상가를 새롭게 신축해 청년, 취약계층 등에 저가 임대를 통해 지역상권을 살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중화 도시과장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도시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민공익수당 성공적 추진 결의 다져

임실군이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27일 읍·면 담당자 회의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의미와 환경실천 협약서 준수의 필요성, 부담수령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

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5,320농가에게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농가를 추가하여 5,622농가에 33억7,300만원(군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 이상이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농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8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와 도내에 양봉

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농가당 1회에 한해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 지급 첫 해인 지난해 5,890농가가 혜택을 봤으며, 올해는 양봉 및 어업 농가를 추가해 6,222농가를 대상으로 37억3,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

남원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1년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 21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104일 동안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홍보 및 취약지역 계도·단속을 통하여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진화 조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산면 일원에 헬기 1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 진화대 120명을 선발하고 진화차 3대를 배치하는 등 산불의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로 대형 산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각 마을 이(통)장 및 지도자 등을 명예 산불감시원으로 위촉,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논밭두렁 불법소각 단속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신고 등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8일 동절기 화재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동절기 화재예방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며 다양한 추진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추진 사항은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 돌봄 서비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안전 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 ▲취약시기 특별 경계근무 등이다.

박덕규 서장은 "올 겨울에는 대형화재가 한 건도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화재안전 관리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은 모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가정과 일터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